

“한국산 무기 다 사와라”... 다산기공, 세계 총기시장 평정

지난해 말 필리핀 육군 입찰서
브라질 등 꺾고 2배 물량 제공 쾌거

과거 미국산 소총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각국에 한국산 자체 제조(Made in Korea) 소총을 수출하며 글로벌 총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총기 제조 전문 강소기업 다산기공(주)이 있다.

다산기공(주)은 최근 필리핀 육군 차세대 소화기 조달 사업에서 브라질 타우러스 튀르키예 메르카브 등 세계적 총기 제조사들을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는 단순히 총을 파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었다.”라는 다산기공(주) 관계자의 말에서 자신감과 함께 진정성이 묻어났다.

다산기공(주)이 필리핀에 공급하는 DSAR-15P는 소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택한 첨단 소총이다. 발사 가스 가스를 내부로 직접 유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가스 피스톤 구조로 설계되어 총기 내부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고온다습하며 악조건이 많은 필리핀 정글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다산기공(주)은 그간 자체 기술 연구소에서 영하의 혹한부터 아열대 무더위, 심지어 진흙탕 속에서까지 작동 가능하도록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 인고의 세월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다산기공(주) 전경

견딘 기술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냉간조 특히 공법으로 제작된 코름 몰리브덴 바나듐 합금강 총열은 내구성을 극대화했고, 총열 덮개는 MIL-STD-1913 피카티니 레일 장착으로 각종 전술 장비 운용도 자유롭게 하였다.

다산기공(주)의 이번 입찰에 대한 승리에는 또 다른 전략적 요소가 숨어 있었다.

필리핀 경찰이 이미 2023년-2024년 DSAR-15P 14.5" 8,492정, 2024년-2025년 필리핀 공군이 DSAR 15 14.5" 5,500정, 필리핀 해병대가 DSAR-15P 14.5" 1,420정 운용 중이라는 점이다.

군과 경찰이 동일한 총기 플랫폼을 공유하면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할 수 있고, 부품 유지보수와 물류 관리에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산기공(주)은 이 같은 '시스템 효율성'까지 제안에 담아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필리핀 공군에서는 다산기공(주) 제공 총기를 인수하여 사용해 보고 좋은 총기를 납품해 주었다고 감사장까지 전달해 다산기공(주) 총기의 우수성을 크게 인정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소총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전북 완주의 총기 제조 강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들을 꺾고 K-방산의 저력을 입증해 낸 것이다.

2026년 초부터 본격 납품이 시작되며, 올해 9월 말까지 육군과 공군 소화기 총기 총 33,000정 전량이 인도될 예정이다.

완주 봉동의 다산기공(주) 공장은 이미 쉴 새 없이 가동에 들어갔다. 총기 제조와 각종 정밀 틀 제작에 특화된 이 강소기업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목표 아래 해외 시장 개척에 매진해 왔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DSAR-15는 이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선택지로 전 세계 소화기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능과 가격, 신뢰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소총이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다산기공(주)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필리핀에서의 성과는 동남아시아 전역, 나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01만호 기자



최철순 선수, 굿즈 판매 수익금 일부 기부

전북현대의 영리한 '최부지 최철순 선수'가 팬들과 함께 모은 소중한 마음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며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그의 상징이자 전북현대의 영구선수번호로 남은 등번호 25번의 의미를 담아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최철순 선수(전 전북현대모터스 소속)는 29일 본인의 굿즈 판매 수익금 중 25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개인의 후원을 넘어, 최철순 선수를 아끼는 팬분들의 마음이 담긴 굿즈 판매로 일궈낸 '팬과 선수의 공동 레거시'라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줬다. 최철순 선수는 평소 흥보대사로 활동 중인 흥보재단 전북지부에 이번 기부금을 전달하며 각별한 관심을 이어갔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사회 재진입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01만호 기자



전북농협, 한국새농민 전북자치대회 이사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김성훈)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대회(회장 한강희)가 29일 전북농협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북농민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도회 임원 및 시·군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새농민회 조직 활성화 방안 △농심전심 운동 가치 전파를 위한 새농민회 역할 △기타 농업 현안 등을 중심으로 전북 농업·농촌 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의료인 부부’ 오종석·고에스더씨, 진료환경 강화 뜻 모아

전북대병원에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은 오종석·고에스더 부부가 병원 발전과 진료 환경 강화를 위해 이비인후과와 영상의학과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발전후원회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원 은고을홀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은 양중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종석·고에스더 부부는 전북대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쳤으며, 이비인후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환자 진료는 물론 의료 연구 발전에서 힘써왔다. 현재는 각각 참이비인후과 원장, 진단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두 의료인은 의료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과 및 병원 발전에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오종석·고에스더 부부는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가 활용되어 진료과의 의료 역량 강화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중주)는 29일, 농신보 남원센터(센터장 이상진)와 2026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경영 실천과 내부부패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은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로 마련. 참석자들은 자정 실천 결의를 통해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

결의문에는 △윤리적 행동적 가치관 확인 △법령 및 제규정의 철저한 준수 △직무 관련 금융 항응 수수 근절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부패 근절 △농협인과의 고객 최우선 가치로 한 농협 사업 전반의 책임있는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대산파출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대기준) 대산파출소(소장 박원성)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소 및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및 이장단회의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대산 신협 이강진 차장은 신협에 방문한 고객이 3,000만원의 인출하고 불안해하며 어디까지 송금하려 하자 이를 눈여겨보며 112신고와 동시에 송금유무를 물으며 지연시켰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사실을 파악 후 즉시 송금을 중지하고 경찰에 인계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박원성 대산파출소장은 “노소 및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에 금융기관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이장단회의를 통해 마을방문을 적극 활용, 사기 의심 전화 등을 받을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보건소, 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본격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재활운동실에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재 방문재활사업 대상자는 뇌병변 장애인 8명, 지적장애인 17명, 기타 장애인 3명 등 총 28명의 집중관리군으로 구성돼 있다.

숙련된 재활전문인력(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이 2인 1조로 월 2회 이상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에 맞춘 1:1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50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기자극치료, 운동기구를 활용한 관절 운동, 스모비 운동,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전문적인 작업·물리치료를 비롯해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낙상·화상 예방 교육, 기타 건강관리 교육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춘 보건 의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김제=곽동태 기자

아중어린이집, 전주시복지재단에 후원물품 전달

아중어린이집(원장 이영희)은 29일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윤남섭에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물품(1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아중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후원 물품은 라면과 화장지, 백미, 물티슈 등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인취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중어린이집은 매년 이러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아이들이 나눔을 직접 경험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윤남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소중한 후원에 함께해 주신 아중어린이집 이영희 원장님과 원아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모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큰 따뜻함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



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반기 운영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화(063-281-033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남원 주천면, ‘건강체크 백세만세’ 사업 추진

남원시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노환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체크 백세만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면 특화사업으로, 관내 24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1월 회덕마을부터 현재 3개 마을에서 총 34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과 복약지도,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겨주고 상담도 해주어 안심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노환순 면장은 “백세만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민 밀착형 사업이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의 기부자, 대강면에 쌀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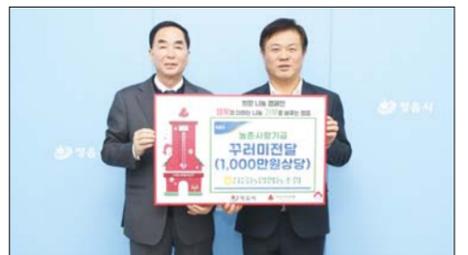


익명 기부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대강면은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남원농협라이프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100포를 기탁, 해당 기부자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차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익명으로 쌀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부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강철 대강면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이어진 익명 기부자의 나눔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 기부해 주신 쌀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농협, '사랑의 생필품 꾸러미' 정읍시에 기탁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지난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7개를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꾸러미는 가구당 10만원 상당으로, 명절 생활에 필수적인 소고기, 떡국을 비롯해 화장지, 라면 등 실용적인 물품들이 포함됐다. 기탁된 물품은 정읍농협 사랑나눔봉사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시, C형간염 항체검사 사업 지속 추진



남원시는 C형간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2026년에도 C형간염 항체검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C형간염은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로 질병 부담이 매우 높으며, 지원 대상은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HCV RNA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당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해당자는 정부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50대 이상 등 500명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 시 상담과 확진검사 연계 등을 통해 시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내방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